

# 2월 지육시세는 3,750원/kg 예상

희망찬 2005년도를 시작하면서 양돈 농가는 다른 어느 해 보다 기대가 높다.

사상 최고의 돈가를 기록하였던 2004년도 보다 더 좋은 돈가를 보일 것으로 기대하면서 희망적인 내용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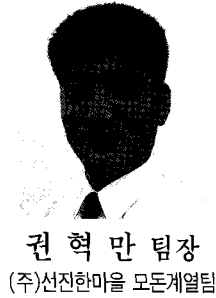
이러한 내용들을 뒷바침 하듯 2004년 12월 조사된 돼지 사육 두수를 보더라도 전년 동기간에 대비하여 약 5%이상 줄어든 872만두를 기록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2월 출하 예정 돈에 영향을 미치는 2~4개월령의 사육두수 또한 288만6천두를 기록하여 전년동기 4% 감소 하였다.

이러한 사육두수의 감소는 필연적으로 출하두수를 감소시켜 시장의 공급물량을 감소시키고 공급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의 효과를 나타내게 만든다.

따라서 금년 상반기 돼지 가격이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볼 수 있겠다.

그러나 위험 요소도 동시에 갖고 있어서 상황이 반전되는 경에 대한 대비책도 동시에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2003년 말 발생한 조류 독감이나 광우병 등과 같이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엄청



권혁만 팀장  
(주)산진한마을 모든계열팀

난 여파를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대비책을 갖고 가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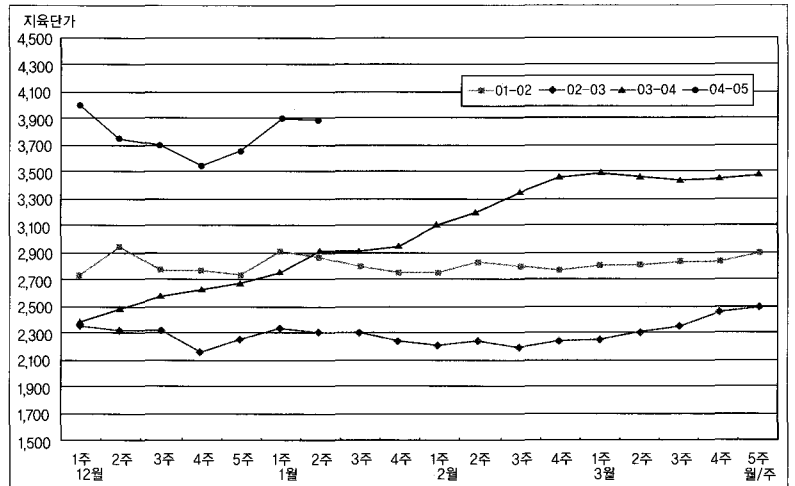
현재의 돈육시장의 상황은 겨울 방학으로 인한 단체 급식 시장의 감소에 따라 시장 소비 감소 추세가 나타나고 있으나 공급량 또한 줄어들면서 돈육 가격은 보합세를 이어가고 있다.

도매시장의 출하두수는 2004년 12월말 2주간 49,631두가 45,160두로 약 10% 줄어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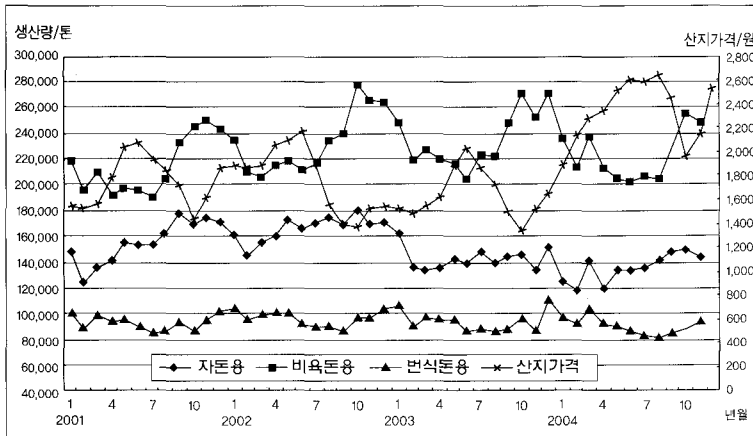
<그래프 3>의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축두수는 12월이 108,3이고 1월이 101,2로서 약 7.1% 줄어드는 것이 평균이라고 볼 때 10%의 감소로 감소 폭이 확대되고 있는 모양이다.

공급 감소에 따라 돼지 가격이 상승해야 하나 소비 감소도 함께 발생하면서 돼지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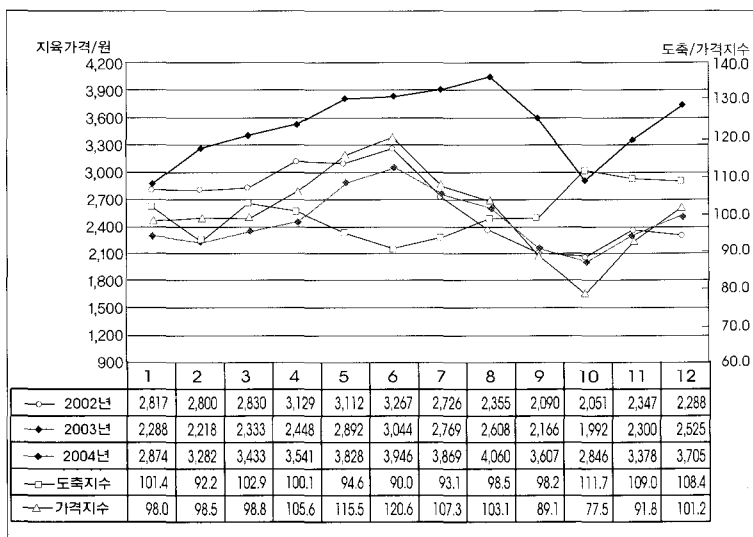
<그래프 1> 전국 도매시장의 최근 4개년간 주간별 지육가격 동향



〈그래프 2〉 최근 4개년간 월별 사료생산량의 변화와 돈가 동향



〈그래프 3〉 최근 3개년간의 월별 도축 및 가격지수와 월별 돈가동향



은 보험세를 유지하고 있다.

금년 2월은 민속명절인 설날이 있기 때문에 상순에는 일정 소비가 있겠지만 설날 이후 소비 약세로 인하여 돼지가격의 약세가 예상되기도 한다.

현재의 부분육 소비 시장은 지난 달과 비슷하여 출하물량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삼겹살은 소비가 부진하여 일부 업체는 냉동으로 저장을 하고 있고, 일부 업체는 냉장으로 덩핑판매를 지속하고 있고 전후지는 부족하여 지속적인 고가격을 유지하여 kg당 3,500원을 웃돌아

거래되고 있다.

극심한 소비 부진 속에서 돼지 가격을 지지해주는 것은 삼겹살이 아니라 그 동안 소비부진으로 싼값에 거래되며 천대 받아 오던 전후지 가격이 강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출하물량을 예측하는 또 다른 수치는 배합사료 생산량을 들 수 있다.

2004년 11월 자돈 사료 생산량은 142,314톤으로 전년동기 대비 6.7%증가하고 전월 대비 5.3%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2월 출하 예상물량은 설날과 28일까지 밖에 없는 작업일수 감소 원인으로 줄어 드는 것을 배제할 경우 오히려 일일 출하두수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매년 2월은 〈그래프3〉에서와 같이 도축지수가 90.3으로 연중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28일까지 밖에 없어 자동으로 10% 감소하고 설날 때문에 감소하는 작업일수를 계산하면 오히려 연 평균을 웃도는 수치로도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 해보면 2005년도 2월의 전국 주요 도매시장의 비육돈 지육단가는 소비부진으로 인한 약세 속에서도 출하두수가 감소하고 설날의 수요증가 등을 감안하면 보험세를 보여 3,750원대를 중심으로 형성될 것 같다. **양돈**